

“충북 실정 맞는 임금가이드라인 마련 시급”

충북사회복지사협회, 충북형 단일임금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 개최

사회복지 현장·시설 유형별로
직렬·직종간 편차가 크고
호봉과 경력산정 기준도 제각각
보수총액 정확한 산출 어려워
유형별 인건비 기준 마련해야



충북사회복지사협회는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사등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형 단일임금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하였다.

충북사회복지사협회(회장 이원기)는 11일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사등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형 단일임금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하였다. 그동안 충북사회복지사협회는 2013년 12월 27일 '충북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에 이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시책을 추진하고자 충북 복지시설 보수지급 실태 연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충북도내 복지시설 보수지급 수준 실태조사 분석자료와 타 지자체 단일임금체계 진행경과 및

현재 기준 비교를 통해 충북 복지증진 정책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는데, 6·13지방선거 사회복지 정책제안 및 제도개선을 통해 지역복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현진 교수의 "충북형 단일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의 주제 발표에 이어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김영석 회장의 사회로 진행이 되었는데 분야별 토론자로선 아동·청소년분야의 한재희 센터장(사랑나눔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분야의 권용선 센터장(여성긴급전화1366충북센터), 지역복지분야

의 김경호 센터장(청원지역자활센터)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발제자로 나선 김현진 교수는 "다양한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의 보수지급 실태는 시설 유형별로, 직렬이나 직종간에 편차가 크고, 호봉산정, 경력산정 등에도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서 호봉이나 연 보수총액 등에 대한 정확한 수치 산출을 통한 비교는 근본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 하였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 아직까지 인건비 기준 가이드라인이 없거나, 기준이 있다해도 타 유형에 비해 낮거나, 그나마도 적용이 안되는 곳이 있는 등 실태

현장마다 다르게 일관성 없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므로 충북만이라도 차별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충북형 단일임금 체계'가 마련 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현재 더 낮은 처우를 받고 있는 타 분야의 동료들에게 먼저 혜택이 돌아가는 것에 대한 동의,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적극적 참여 등이 매우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 하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사회복지사들은 현재 다른 직종에 비해 매우 열악한 근무환경이나 보수체계에 대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관심을 갖고 개선을 해 주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충북복지 제안대회'에서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 손영환 부장이 충북지역 영역별 알찬 복지 의제를 발표하고있다.

“복지는 생활입니다”

지방선거 복지 의제 전달 위한 '충북복지 제안대회'

충북사회복지사협회(회장 이원기)와 충북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는 23일 가톨릭청소년센터 합계탈도홀에서 충북도내 사회복지 직능단체(총13개소)와 공동 주관하여 충북사회복지계가 제안하는 충북지역 복지 의제 "복지는 생활입니다"를 개최 하였다. 이날 '충북복지 제안대회'에는 충북지역 13개 사회복지 직능단체장과 사회복지사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석 하였다. 이번 제안대회는 6·13 지방선거 시 도지사, 시장, 군수 후보에게 충북지역의 복지발전을 위해 사회복지현장에 필요한 복지 의제를 전달하고, 사회복지계의 핵심 정책 및 우선 해결과제 요구를 통하여 향후 시정 운영반영 및 사회복지정책을 직·간접적으로 입안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사회복지계에서는 이번 제안대회를 통해 주거, 안전, 건강, 사회적약자, 사회인프라, 교육복지의 6대 복

지 의제를 가지고 복지국가 초석으로서의 지방정부 복지정책 가이드북을 제시하고자 하며 제안대회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효적인 복지 의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실현되었으면 하는 가에 대한 의제를 제시하고 함께 논의하며, 사회복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 한다고 하였다. 의제 제안에서는 행동하는 복지연합 양준석 사무국장이 충북지역 6대 우선복지의제를 제안하였고,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손영환 부장이 충북지역 영역별 알찬 복지 의제를, 그리고 도내 사회복지직능단체장들이 직능별 의제를 제안 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날 개최를 주최한 충북사회복지사협회와 충북사회복지협의회는 채택된 의제를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광역, 기초 단체장 후보들에게 공약으로 선택 될 수 있도록 전달할 예정이다.

‘국밥은 사랑을 싣고’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연합봉사단 청주 중앙공원서 무료급식 나눔

충북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와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연합봉사단(회장 심재훈)은 '2018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연합봉사단 무료급식나눔행사'를 6일 청주 중앙공원에서 약 500여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무료급식나눔행사'는 매년 지역 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자 진행되는 행사로서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무료급식, 어버이날 위문공연 및 이·미용 서비스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김영석 회장은 "이번 급식 나눔을 통해 가정의 달의 참

된 의미를 되새기고 나눔에 대한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자원봉사 홍보 효과를 기대한다"며 "비가 많이 오는 날씨에도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봉사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진정한 사회복지라 생각하며 이웃 어르신들께 희망의 씨앗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무료급식나눔행사는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연합봉사단 외 나눔의인연 봉우회와 서원대학교, 청주대학교, 충청대학교 등 다양한 자원봉사자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하여 '2018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연합봉사단 무료급식나눔행사'가 6일 청주 중앙공원에서 진행됐다.

“충북도 지역인재 취업기회 늘려 주세요”

도,기업 등과 상호 협력방안 논의

충청북도는 1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기업과 대학, 일자리 유관기관과 함께 협

력방안을 논의하고 결의를 다졌다. 지난 9월 8일 도내 51개 유관기관이 체결한 지역인재 채용 확대 업무협약 식에 따른 것으로 두 번째 회의이다. 이날 회의에서 지역인재 채용 확대

방안을 설명한 서원대학교 조광주 교수는 구직자의 직무에 대한 관점변화와 기업의 일·생활균형 문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 세계화·유비쿼터스 시대에 맞는 인재육성 방안과 인재육성을 위한 공공기관의 노력 사례 등을 소개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공공기관 관계자

는 정부의 지역인재채용 할당제 운영과 관련, 2022년 목표인 30%를 조기에 달성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는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안정자금, 일자리 미스매치로 인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SK하이닉스 청주1,2,3공장

5월의 행복나눔 크리스마스

사회적기업 생산품 홍보지원
판매수익금 푸드뱅크에 기부

SK하이닉스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각각 SK하이닉스 청주1·2·3공장에서 '5월달 크리스마스'행복나눔 행사를 진행하였다. 3일 기념식에는 이시종 충청북도지사과 이범석 청주시장 권한대행, 이명석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김영석 충북사회복지협의회회장, 하덕천 충북사회적기업협의회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이번 행사에는 SK그룹이 추천한 7

개 사회적기업과 충북지역 23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참여하였다. 사회적 기업에게는 생산 물품에 대한 판로 확대 지원 및 기업 홍보의 장을 제공하였고, 행사 후 판매 수익금 일부는 지역 소외계층에게 식료품을 제공하는 푸드뱅크에 기부하였다. 또한 임직원의 정기기부 및 소액기부 참여유도, 각종 나눔캠페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기부된 금액은 충북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하여 푸드뱅크 나눔꾸러미를 제작하고 도내 소외계층에게 직접 전달하는 행사를 별도로 5월중 진행할 예정이다.

충북사회복지신문

광고 게재 안내

지면	크기	배색	금액(원)
1면	4단 (360mm×138mm)	컬러	300,000
	제호 옆 돌출 (67mm×33mm) (3개월)	컬러	100,000
2면~7면	4단 (360mm×138mm)	흑백	150,000
8면	4단 (360mm×138mm)	컬러	200,000

게재 개월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최희연 사회복지사 (T.043-234-0840~2)

'군민이 행복한' 증평 만들기 총력

충북도내 최초 행복증진 조례 공포... 행복지수 도 1위

증평군이 충북 도내에서 최초로 '증평군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행복증진 조례')를 공포했다.

14일 군에 따르면 이번 행복증진 조례는 주민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행복정책 추진을 위해 제정됐다. 행복증진 조례에 따라 군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적 가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주민행복 증진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민 요구 파악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군정에 반영해 체감도 높은 행복증진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행복증진 조례가 주민이 행복증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행복증진 조례를 토대로 증평군이 도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행복한 지역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증평군은 지난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실시한 충북도민주관행복지수 조사결과에서 도내 지자체 가운데 행복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음성-충북지재센터 특허상담 '호응'

중소·벤처기업·예비창업자 맞춤 이동상담실 운영

음성군은 청주상공회의소 충북지식재산센터와 10일 금양읍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중소·벤처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이동특허상담실을 운영했다.

충청북도과 특허청에서 지원하는 이번 상담은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지원을 위한 '2018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공간적으로 특허상담을 받기 어려운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해결해 주는 고객 맞춤형 지원 사업이다.

이번 이동특허 상담에는 변리사, 관세사, 특허·브랜드 전문 컨설턴트 등 전문위원들이 1:1로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고, 관내 30여 업체 및 개인이 참석해 특허·상표·디자인의 출원 및 기술통과·사업화·정책자금에 대한 상담은 물론 출원절차, 지재산권 분할 시 대처방안, 센터 연계 지원 등에 관한 폭넓은 컨설팅을 제공받았다.

"자살 막아라"... 진천 유관기관 '맞손'

전문가 12명 모여 예방위원회 정신건강사업 등 관리 '은 힘'

진천군은 10일 보건소 대회의실에서 자살예방위원회를 개최했다.



10일 진천군보건소에서 자살예방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위원회는 위원장인 박재국 부군수를 비롯해 진천교육지원청, 진천경찰서, 진천소방서, 진천시니어클럽, 진천성모병원, 늘푸른정신건강의학과 등 유관기관 전문가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진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준기 센터장이 관내 자살예방현황과 함께 올해 정신건강사업 종합

계획 및 자살예방을 위한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진천군의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013년 42.5명, 2014년

38.8명, 2015년 36.3명으로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였지만 2016년 36.5명으로 다시 조금 높아졌으며, 전국 평균 25.6명에 비해 자살률이 높은 편이다.

군 관계자는 "관내 등록 정신질환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생명 의 소중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나가겠다"라며 "지역주민을 위한 지속적인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천군 관내 등록 정신질환자수는 지난 4월말 기준 238명이다.

진천군은 2008년 처음 진천군정신보건센터로 개소를 하고 2012년 '진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 2013년 7월 도내 최초로 진천군 자살예방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청주시 노인보호구역 8곳 추가 지정

홍덕시니어클럽·우암노인정 일대... 총 14곳으로 확대

청주시는 노인보호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보호구역(일명 슬리버 존·sliver zone) 8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교통약자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교통법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으로 대상지는 경찰서, 도로교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로 청주 노인보호구역은 기존 6곳을 포함해 총 14곳으로 늘었다.

시 관계자는 "추가 지정된 노인보호구역 구간에 대해서 통합표지판 및 규제 지시표지판을 우선 설치할 계획"이라며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2019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수요조사와 맞춰 국비 반영을 위해 노력하는 등 노인보호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전길잡이 읽어두면 재난에도 '든든'

제천 '생활안전 길잡이 책자' 발간... 3개 유형 수록

제천시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비해 예방, 대응법을 수록한 생활안전 길잡이 책자(사)를 발간 배부한다.

생활안전 길잡이는 유치원생, 초등학생, 어르신, 주부 등 안전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시민 누구나 쉽게 읽어 긴급한 사고 발생 시 즉시 연상해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 유형별 대응요령을 삽화 형식으로 담고 있다.



고 있다.

생활안전 길잡이는 생활안전,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 3개 재난 유형으로 구성된다.

생활안전은 화상, 야외활동 중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소화기사용법, 불량식품과 식중독, 불발이 안전, 승강기 안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공연행사장 관람 안전, 캠핑장 안전 등 11개로 구성돼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

안전문화 캠페인 활동 시 시민들에게 배부해 시민 안전의식 제고를 통한 안전도시 제천 만들기에 기여할 방침이다.

생활안전 길잡이는 생활안전,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 3개 재난 유형으로 구성된다.

생활안전은 화상, 야외활동 중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소화기사용법, 불량식품과 식중독, 불발이 안전, 승강기 안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공연행사장 관람 안전, 캠핑장 안전 등 11개로 구성돼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

시 관계자는 "이번 생활안전 길잡이 책자가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또한 시민들도 평소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재난이나 각종 위험 요소 발견 시 신속히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책자 5000부를 발간해 실과사업소와 시청 민원실,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등 행정기관과

충북사회복지신문

발행인 김영석 편집위원장 박상준 편집고문 겸주필 김춘길
(2858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전화: 043-234-0840 FAX: 043-234-0849
E-mail: cpscw@chol.com 홈페이지: www.cwin.or.kr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가능하나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방침을 발표하면서 청주지역 학부모들이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 청주지역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을까.

청주시어에 따르면 청주지역 전체 어린이집 개수는 739개다.

이중 국공립 어린이집은 20개소로 전체의 2.7%다. 낮은 확률을 만큼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도 4.3%로 저조하다.

시는 최근 이같은 현실의 해결과 인구 확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국공립확충 중앙기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청주지역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현 1196명에서 3639명으로 13.3%까지 늘어났다. 이에 따른 시설비율도 현재 2.6%에서 7.8%까지 전망할 수 있다.

현재 정부의 지원 방안과 시의 중장기 계획이 선순환적으로 진행된다면 당초 계획보다 많은 수의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설 수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일손 해결"

영동 외국인 계절근로제 추진... 9월까지 과수 영농작업

영동군이 4일 영동군청 소회의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군에 따르면 이 제도는 다문화 가정의 모국 친정가족을 초청해 농사일을 돕는 제도로 법무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극심한 일손부족현상 해소를 위해 추진한다.

영동청 영농의 부담을 덜어 주는 동시에 타국에 온 결혼이민자가 친정 부모·형제들과 만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면서 조기 정착에도 도움을 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고령화한 농촌 실정에서 젊은



충주경찰서 "학교폭력 그만"

충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12일 충주학생회관에서 대한청소년보호소년관찰대 등 9개 기관과 협력,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은 500여명이 참여, 사회 약자 보호 3대치안정책인 젠더폭력 근절, 학대·실종 대응 강화, 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내용으로 실시됐다.

참여학생들은 학교폭력과 음주 및 흡연을 하지 않을 것을 선서하고 시민과 학생들에게 홍보물을 나눠 주었다.

"수도요금 감면 신청하세요"

육천군 세금 감면제도 홍보

육천군이 현재 시행 중인 수도세 감면제도에 대한 홍보를 추진키로 했다.

현재 세무 감면 대상은 기초생

활수급자 가구 중 가정용인 경우,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가정용과 보훈단체 업무용인 경우, 장애인 차상위계층 중 가정용인 경우,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3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로 중 가정용인 경우다.

이들에게는 당월 수도요금에 5t(5t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해 준다.

수도요금 감면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 증명서 등을 지참해 신청수도사업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4월 푸드뱅크 · 푸드마켓 식품기부자 명단

- 푸드뱅크는 소외계층을 위한 식품 나눔 은행입니다 -

- 충북광역푸드뱅크**
(주)에스앤푸드, CJ신선 진천센터, GS리테일 발안물류센터, 롯데홈쇼핑센터, CJ나눔 케어센터, CJ수원빈곤센터, 대상 양지센터, 대상 용인 저온센터,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북농협, 충북낙농농협, 낙농축산운동본부, 중앙랜드 한우협회, (주)파낙산, (주)대승푸드, 롯데푸드, 체리푸드, CJ우유(충청평정), 송림푸드, 청주유동, 에버리치, CJ신선 덕평센터, 롯데홈대진센터, 중앙재단(주), 롯데네슬레 청주공장, LG생활건강, (주)엘로드리, 송림푸드, 대상 덕평센터, 시아스 청주공장, 영농법인 무지개농장, (주)디블어, (주)파이아씨푸드, (주)금강B&F, KGC인삼공사 충북지점
- 충주중대기초푸드뱅크**
중앙오카충청청주지점, 롯데제과(주)청주영업소, 마늘보살, 설악우유방, 좋은아침(주)케이씨푸드, 명동보리밭, 삼육우유서부대리점, 좋은아침, 피자헛 청주대점
- 충주사랑나눔푸드뱅크**
참조은유동, 웰리스(분평동), 백설우유, 홈플러스익스플러스, 좋은아침(가평점), 파리바게뜨(가평점)
- 충주제일푸드뱅크**
충주제일교회 한기장복지재단, (주)한백식품, 푸레유 올리브점
- 충주새영푸드뱅크**
- 좋은아침오창점, 파리바게뜨생생점, 푸레유로한라점, 푸레유로산업단지점, 기본좋은날, 그린하우스과자점, 오창홈마트, 자갈치 민속떡집, 칠떡공방, 광주기독교서점, 전원푸드, 낙원떡방
- 충주주세군푸드뱅크**
주식회사 시아스, 푸레유로 금천점, 파리바게뜨 분평점, 한솔 제2공장, 공천떡집, 금관할인마트, 해신수산물, 푸레유로 금천뉴타운, 마베오 베이커리, 행복&떡집, 유신포럼, 파리바게뜨 청주제일점, 맥이랑, 푸레유로 청주용정점, 파리바게뜨 청주용정대리점, 영농조합법인 최여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청주용정점, 천명영농조합법인, 경수기획(충청), (주)월드이샵에이치규, 자연애연합영농조합법인, 천명, 김가네 생고기정육점, 파리바게뜨 청주제일점, 주주백, 서울우유치즈, 시아스유동, 푸레유로 분평점, 목향원과, 금관할인마트 율령점, 청주특대(주), 무외에 무외
- 충원기초푸드뱅크**
(주)유리봉, 신과들F&C, 파리바게뜨 오창중앙점
- 증평군푸드뱅크**
- 가림기계, GS슈퍼 증평점, 케이하우스, 금호술볼칼비, 서산식품, 좋은아침 율령점, 파리바게뜨 내수점, 한그루식품, 오투기, 단바상사, 단킨도너츠 증평점, 엘리컨 증평점, 그린유동, GS25 증평대리점
- 괴산군기초푸드뱅크**
진미식품, 과산집콕, 신선나도, 신선촌, 온산식품, 제주중앙과, 풀무원, 세미숙, 유인숙, 정국희, 마베오 베이커리, 푸레유로괴산점, 파리바게뜨괴산점, 메트로통상 미미식품, 한살림축산식품, 주성베이커리
- 옥천군푸드뱅크**
푸레유로 엘마트점, 구가네 농이보장, 조마루 김지향, 목도가든, 행운목, 미가(한정식), 이가화로, 옥천청향로터리클럽, (주)한일푸드
- 영동나눔푸드뱅크**
푸레유로(김홍옥), (주)벨명육가공
- 보은군기초푸드뱅크**
(T. 543-6255) 서울우유(보은점), (주)서울동행, CJ나눔재단, 롯데홈(청주, 충주, 대진, 오포, 안성), GS리테일
- LG생활건강, 대상(일죽센터), 대전중앙물류센터
- 음성군푸드뱅크**
CJ푸드빌, 꽃피는아침마을, (주)다농원, 삼명농장, 영암떡방앗간, 김이박부대찌개, 단킨도너츠(금양), (주)이가지자연, (주)푸드원, 김점철스머리국밥, (주)맑은애음, (주)풀무원, (주)맑은식품
- 진천군푸드뱅크**
삼진푸드, 푸레유로(성모병원점), 명사랑, 체리부로, 조인, 목우촌, 동원(이천백업), 삼육우유, 파리바게뜨(덕산점)
- 진천나눔과기초푸드뱅크**
파리바게뜨 진천점, 태남 메디스코, 신도식품, 윤지영, 김정식, 리브가왕만두명행, 김수향, 엘리컨(이월점), 에스앤푸드, 자혜식품, 명기떡집, CJ푸드빌, 해마로푸드서비스, 파스쿠찌, 행복한 떡집, 이삭식품, 명기떡집, 생가진식품, 맑은애음
- 충주기초푸드뱅크**
고인돌식품, 대우유동, 엘리컨충주교현점, 떡보
- 의학부, 푸레유로 주덕점, 롯데제과(주)충주영업소, 삼성청과유동, 삼일상회, 서울우유치즈충주대리점, 유원우동, 육사청과, 은해청과, (주)미립농산, CS코리아, 자미원에프앤지, 충주청과, 하나로 베이커리(충주점), 한이름청과
- 재천시푸드뱅크**
건국유업, 두리대떡가, 롯데제과 재천, 박달재씨푸드, 문유동, 씨알푸드, 오투기 재천점, 오투기, 대상김치, 푸른촌, 풀라린, 365할인마트, 크리스피크림제천중앙점, 호수상사
- 단양군푸드뱅크**
진천면사랑, 진천ON푸드, 음성CJ, 음성(주)조인, 충주김치나라, 재천푸른촌, 롯데홈, 일죽청정원, 재천씨알푸드, CJ 진천, 단양(주)정몽, 단양두송식품, 서울우유 단양대리점, 파리바게뜨 단양대리점
- 단양나눔과기초푸드뱅크**
CJ나눔재단, 롯데홈(청주, 충주, 대진, 오포, 안성), GS리테일, LG생활건강, 대상(일죽센터), 광주파리크라상업체, 신선초, 허림, 맑은식품, 한은, 섀데이푸드, 대상청정원

충주 '아동 결식 예방' 급식지원 조례 추진

(저소득)

아동결식 예방위해 7월 시의회에 제출 예정 급식업체 대상 정기적 위생·안전교육 실시

충청권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충주시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시는 저소득층 아동의 결식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고자 '충주시 아동 급식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결식 우려가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아동, 한부모가족 아동,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 아동, 보호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급시설 수용 등으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보호자의 사고·질환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이 미약하거나 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다. 여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 지역아동센터·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이밖에 담임교사·사회복지사·이동반장·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 등이 해당한다. 시는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등을 고려해 급식소, 일반음식점, 도시락 배달, 부식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조례안은 아동급식 지원을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9~15명의 아동급식위원회를 구성하고,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정

기적인 위생·안전교육을 하도록 규정했다. 이어 급식 지원 대상자에게 급식 지원 외에도 경제적·정서적 지원 등의 후원도 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시는 24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들은 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7월 새로 개원하는 8대 충주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조례안은 공포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간다. 충주시는 지난해 8월 충청권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인증 속도 낸다

아동권리 전담팀 신설 등 12단계 세부추진계획 마련

옥천군이 2019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인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단계별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4월 김성식 부군수 중심의 실무추진단 구성하고 내년 3월 아동친화도시 인증 신청까지 약 1년여에 걸쳐 진행할 12단계의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아동친화도시(CFC, Child Friendly City)'란 만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다. 먼저 4월 중으로 총괄기획반, 지원반, 홍보반 3개 반으로 구성된 아동친화도시 인증 실무 추진

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다. 아동친화도시 관련 전략을 수립하고 아동영향평가, 사업선정, 각종 정책·조례·정책 등을 반영 및 홍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하반기 조직개편 시기에 맞춰서는 군청 조직 내 아동권리 전담팀을 신설한다. 아동친화도시 인증 평가의 필수항목이기도 한 아동전담 기구에는 총 4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운영, 아동영향평가 계획 수립, 아동종합실태조사 등을 담당하게 된다. 오는 7월까지 옥천군, 의회,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모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하고 인권관련 사회단체 강사를 초청해 전 직원

을 대상으로 공무원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오는 8월까지 아동에 관한 직·간접적인 예산을 전수 조사하고 아동 관련 예산이 적절히 확보되고 있는지에 대한 예산 분석에 들어간다. 10월까지 지역사회 내 아동권리에 대한 가치와 정보공유를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아동의 긍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30명 이내의 아동참여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계층별 아동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컨설팅 및 아동친화도 평가 용역을 10월 중 마치고 전반적인 로드맵과 중점사업별 추진상황을 제시할 예정이다.

노인복지 증진·문화재 보호 '일석이조'

영동군·영동군노인복지관 문화재시설봉사 운영 '호응'

영동군과 영동군노인복지관이 추진 중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이 농촌에 새로운 활력과 웃음을 전하고 있다. 고령화된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노인복지증진의 일환으로 지역노인들의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 기회를 만들고 있다. 그 중 영동군의 문화와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소중한 지역 문화자원을 관리하는 '문화재시설봉사'가 눈길을 끌고 있다. 문화재시설봉사는 보존가치가 높고 상시 관리가 필요한 문화재를 지역사정을 잘 아는 현지 주민이 환경정화 등 세심히 관리하는



사업이다. 대상유적은 읍면과 해당마을 노인회의 추천을 받아 다수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시설을 우선으로 선정됐다. 올해에는 국가민속문화재 제 132호 '영동소석고택', '강선대' 등 48개의 문화유적에 72명의

평소 단려한 있던 유적지에 마을 주민들이 직접 관리에 참여함으로써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키고, 문화재를 매개로 일자리까지 창출해 문화재 주변 규제에 대한 거부감도 줄일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문화재를 찾는 방문객에게도 문화재에 대한 설명과 휴식공간 조성으로 문화재 가치와 존재감을 다스린한 생각해보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양산면 박정용(75) 씨는 이곳 토박이로, 향토유적지 강선대를 관리하고 있다. 박 씨는 "적지 않은 나이지만 노인일자리를 통해 강선대를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을 만나면서 문화재 뿐 아니라 지역 자랑거리를 홍보하고 지킬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영동군과 마을을 위해 지속적인 일자리 활동을 참여하고 싶다"며 미소를 지었다.

지역노인들이 '문화재 지킴이'로 나서고 있다. 선정된 유적은 근무자 1~2명이 월 10회 총 30시간을 활동근무로 월 27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다. 특히, 유적지 주변 마을주민들을 우선 선정해 향토애를 기반으로 관리 효과를 배가시키고 있다.

증평군,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증평군은 1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위원장 이재영 증평부군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 이재영 증평부군수를 비롯해 괴산경찰서, 청주공영센터, 대한적십자사 증평지부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증평군지회, 토지주택공사, 하나센터 등 관련 단체 위원 등 9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민·관 단체들과의 연계협력 방안 및 지원방향에 대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을 나눴다. 회의를 주재한 이재영 부군수는

"남북정상회담 및 남북교류분위기에 발맞추어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이들이 지역사회 내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12년에 구성된 증평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청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늘린다

'국공립확충 중장기계획' 설립 2020년까지 60개소 확대추진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방침을 발표하면서 청주지역 학부모들이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정부가 사회적 책임 강화 차원에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대대적인 확대를 실시한다면 해당 교사의 처우는 개선되고 학부모들의 양육·보육 부담감은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실제 청주지역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을까. 현재 청주지역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도내에서 역외하위에 그치고 있다.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지역 전체 어린이집 갯수는 739개다. 이중 국공립 어린이집은 20개소로 전체의 2.7%다. 낮은 확률만큼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도 저조하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2만 7836명 중 국공립을 이용하는 어린이는 1201명으로 4.3%의 이용률에 그친다. 시는 최근 이같은 현상의 해결과 인구 확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국공립확충 중장

기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을 살펴보면 시는 2022년까지 현재 20개소인 국공립어린이집을 60개소로 확대한다. 이는 4년간 40개소로, 1년 평균 10개씩 확보해야 가능한 수치다. 시는 연도별로 올해 4개소(신축1·전환3, 소요예산 23억원), 내년 8개소(매입1·전환7, 16억원), 2020년 8개소(전환8, 9억원), 2021년 8개소(전환8, 9억원), 2022년 12개소(전환12, 15억원)를 계획하고 있다. 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청주지역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현 11.93%에서 36.39%으로 13.3%까지 늘어난다. 이에 따른 시설비율도 현재 2.6%에서 7.8%까지 전망할 수 있다.

8만명 진천군 '시 승격 성큼'

연내 9만명 넘어설 듯... 혁신도시·공동주택 입주 영향

진천군은 꾸준한 인구 증가세로 연내 상주인구가 9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밝혔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4월말 현재 상주인구는 8만883명(주민등록인구 7만5천238명, 외국인인구 5천646명)으로 집계됐

다. 주민등록인구는 지난달말까지 4개월간 2.11%(1천561명)가 증가해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7위, 82개 군단위 자치단체 중에서는 경북 예천군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충북도 전체 인구는 같은 기간

732명이 증가해 진천군이 도내 인구 증가세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천군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세는 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과 공동주택 분양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충북혁신도시는 지난 3년간 4개 블록 2천884세대에 이어 올해도 4월까지 586세대가 입주했으며, 상반기 중 추가로 830세대가 입주한다. 하반기에도 2개 블록, 2천600여 세대 입주가 예정돼 충북혁신

도시가 들어선 덕산면에서만 추가로 1만명 가까이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혁신도시에 올해 예정된 4천여 세대가 모두 입주하면 지난 3월 50년 만에 상주인구 8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9개월 만에 9만명을 넘어서는 진기록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 충북혁신도시 전입자 가운데 지역의 전입 비율이 70%로 나타나 2025년 진천시 건설을 위한 인구 15만 목표 조기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괴산군, 통학용 LPG차 교체 지원

노후 경유차 대상 최고 500만원 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 16일 군에 따르면 사업비 1천 500만 원을 들여 노후된 어린이 통학용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신차로 구매할 경우 대당 500만원 지원해 주는 '노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어린이 통학용으로 사용하는 9~15인승 승용·승합차나 소형버스,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가 해당된다.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어린이 통학용으로 사용하는 9~15인승 승용·승합차나 소형버스,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가 해당된다.

진천 초등생 대상 성교육 이동버스 운영

진천군은 청소년의 올바른 성 가치관 확립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성교육 이동버스' 사업을

운영한다. 4월 25일 군보건소에 따르면 '찾아가는 청소년 성교육 이동버스' 사업은 올해 처음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년성문화센터와 연계해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실이 아닌 이동식 버스에서 '체험형 성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4월 11일 성암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관내 초등학교 15개교 약 1100명을 대상으로

성교육 이동버스를 운영한다. 이동 버스에는 태아발달모형 관찰, 태도체험, 아기 안아보기 등 임신·출산·육아 체험 등의 체험·전시자료를 마련해 초등학교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쉽고 재미있게 성교육을 진행한다.

정점다리사회적협동조합 국토교통부장관인가번호 제2015-3호
정점다리 협동조합 시설분유지관리업 충북청주 17-29-09

시설물 유지보수 및 리모델링

안전한 삶의 터전 실현

정점다리가 앞장서겠습니다!

(기업, 관공서, 사회복지시설, 일반 시설 하자보수 및 기능보강)

정점다리사회적협동조합 : www.jingdam.co.kr
상담 및 문의전화 : 043)224-6464 / 043)223-4411

이제 시작하는 '치매 국가 책임제'

공공기관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외면'

도내 2만4천명 치매... 치매지원은 '걸음마' 수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와 관련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충북지역 65세 이상 '치매유병률'은 10.85%로 전국 평균 9.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시·군 중에서는 보은군의 유병률이 12.0%로 1위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가 최근 발표한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7'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65세 이상 고령인구 치매 유병률은 10.85%로, 현재 2만4천909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중등도 이상 치매환자는 6천367명, 경증환자는 1만8천873명으로 집계됐다.

시·군별로 보면 청주 9천44명(중등도 이상 2천174명), 충주 3천613명(중등도 이상 886명), 제천 2천391명(중등도 이상 579명), 보은 1천212명(중등도 이상

291명), 옥천 1천468명(중등도 이상 357명) 등이다.

또 영동 1천536명(중등도 이상 368명), 진천 1천212명(중등도 이상 294명), 괴산 1천273명(중등도 이상 309명), 음성 1천797명(중등도 이상 444명), 단양 817명(중등도 이상 197명), 증평 545명(중등도 이상 136명) 등이다.

치매환자를 유형별로 보면 알츠하이머형 1만8천557명, 혈관성 2천148명, 기타 4천204명 등으로 파악됐다.

이어 기억력 감퇴로 치매발견 가능성이 높은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5만4천89명으로 조사됐다.

한 해 동안 진료를 받은 65세 미만 젊은 치매환자도 2천537명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도내 65세 이상 치매유병률은 10.85%로 전국 평균 9.8%보다 높았고, 보은군이 12.0%로 유병률 도내 1위를 기록했다.

지역	유병률	지역	유병률
청주시	10.1	영동군	11.3
충주시	10.6	진천군	11.0
제천시	10.1	괴산군	11.1
보은군	12.0	음성군	10.9
옥천군	11.3	단양군	10.5
충청	10.85		

이 때문에 발생하는 중복의 치매관리비용은 연간 5천115억7천500만 원이며, 1인당 치매 진료비는 224만6천712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의 등 '치매자원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도내에는 현재 상담센터 14개와 안심센터 14개 등이 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치매국가책임제'를 선언하면서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력을 전문의 포함 15~40명으로 권고했다.

하지만 구청과 시·군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는 전문의 없이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등이 배치돼 있을 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치매안심

센터는 중등도 이상의 치매환자가 방문할 경우 치료 대신 병·의원에 연결해 주는 연계 서비스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안심센터가 치매로 고통받는 환자나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다. 치매 정책의 시발점인 치매안심센터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와 각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김모(58·청주)씨는 "치매안심센터의 전문 인력과 운영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치매국가책임제'라는 슬로건이 무색할 지경"이라며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말잔치로 끝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현재 치매안심센터의 인력을 전문 인력화하는 단계에 있다"며 "올해 말까지 치매안심센터의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절반 이상 법정비율 안 지켜 모니터링 후 시정·명단 공포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으로 구매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곳이 절반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총액은 약간 늘었지만, 구매 비율은 오히려 줄었다.

보건복지부는 4월 24일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촉진위원회(위원장 권덕철 복지부 차관)를 열고 공공기관의 2017년도 우선구매실적을 보고받았다.

우선구매제도는 중증장애인의 고용과 자립을 지원하고자 중증장애인을 60% 이상 고용한 생산시설에서 공공기관이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현재 복지부가 지정한 생산시설 544곳에서 장애인 1만1846명이 일하고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은 전년보다 75억원 늘어난 5387억원이었다. 구매 비율은 전년(1.13%)보다 줄어든 1.01%로, 법정구매 비율을 간신히 넘겼다.

전체 1009개 기관 중 우선구매 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455곳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에 위치한 충청북도장애인생산물판매시설 사무실이다.

(45.1%)이었고, 법정비율을 지키지 못한 기관이 554곳(54.9%)이었다. 아예 구매 실적이 없는 곳도 많았다.

우선구매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동북아역사재단으로 총 구매액의 28.3%(7억9000만원)를 중증장애인생산물로 구매했다. 구매 금액이 가장 많은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410억원(2.09%) 규모의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해 35개 공기업 전체 우선 구매액(1666억 원)의 25%를 차지했다.

그 외에 방위사업청(1.05%, 216억원), 제주특별자치도(1.3%, 19억원), 수원시(2.87%, 42억원) 등이 법정비율을 준수하고, 우선구매 금액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해 우선구매 실적에 하향세를 나타내며, 각 공공기관의 실적을 모니터링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적극적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독려한 결과 1분기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높은 금액과 비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법정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요구 이후에도 지켜지지 않는 기관은 오는 9월 명단을 공표할 예정이다.

아동수당 다음달 20일부터 신청하세요

주민센터·복지로' 누리집 신청가능... 첫 지급 9월 21일

오는 6월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아동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정해졌으며 첫 번째 수당은 추석 연휴 영향으로 9월 21일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 시행준비 계획'을 1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아동수당 수급대상인 만 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이달 20일부터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수당 신청을 할 수 있는 보호

자와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동이 입소해 있는 시설종사자 등이다.

단, 아동의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보호자확인 등을 위해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사전신청은 제외)부터 지급된다.

따라서 제도가 시행되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9월말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자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고 25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이면 전날 준다. 9월은 추석 연휴로 인해 21일 지급된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18일 별도로 개통할 계획이다.

어린이 10명 중 4명 '스몸비족' 심각

보행 중 사용률 40% 이상 지난해만 사고 23건 발생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는 10명 중 7명꼴로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며, 보행 중 사용률이 40%를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대대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서울지역 초등학교 가족 1804명(학생 978명, 부모 82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10일 벌인 실험 결과,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률은 41%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초등학생 중 695명(약 72%)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었다. 스마트폰 보유율은 지난해(55%)보다 17%포인트(p) 상승했다. 저학년(1~3학년) 54.5%, 고학년(4~6학년) 86.3%다.

스마트폰 보유 학생은 41%가 "걸어 다니면서도 스마트폰을 쓴다"고 답했다.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응답률은 지난해(28%)보다 15%p 높았다.

보행 중 사용 여부는 '아차사고'를(사고가 날 뻔했다는 응답률)을

자우했다. 보행 중 미사용은 이 비율이 19.3%인 반면, 보행 중 사용은 36.9%로 2배에 가까웠다.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쓰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답한 학생은 267명이었다. 자동차 충돌 108명(40.5%), 혼자 넘어짐 77명(28.8%), 오토바이 충돌 31명(11.6%), 자전거 충돌 20명(7.5%) 등이다.

실제로 현대해상에 축적된 최근 6년 간 사고 데이터베이스(DB)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의 보행 중 스마트폰 사고 접수는 2012년 14건에서 지난해 23건으로 증가했다.

평소 스마트폰 사용 빈도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보면 빈도가 높은 'IV그룹'의 아차사고율은 44.4%로 빈도가 낮은 'I그룹'(19.3%)의 2.3배에 달했다.

취학 전 자녀에게 스마트폰 동영상을 보여줬다는 학부모는 720명(87.2%), 보여주지 않았다는 학부모는 106명(12.8%)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동영상을 보여준 학부모는 34%가 "자녀가 안경을 썼거나, 다른 아이보다 시력이 나쁜 것 같다"고 답했다. 보여주지 않은 학부모는 이런 응답률이 15%에 그쳤다.

생명존중정책 민·관 협의회 출범

자살 문제 해결 위해 정부-민간 40개 기관 참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일 터케이호텔(서울 양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종교계, 노동계, 재계, 언론계 관계자 등 14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국내에서 자살예방을 위한 민·관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처음으로, 자살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는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에 따라 구성·운영되며, 자살문제의 해

결을 위해서는 정부 뿐 아니라 사회 전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범하였다.

자살률의 획기적인 감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적으로 함께 움직여야 하기에 민·관의 협력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먼저, 자살은 예방이 가능하다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자살예방교육을 통한 게이 트키퍼 양성, 자살보도 권고기준 확산 등 민간의 참여와 범사회적 분위기 전환이 중요하다.

발족식 행사에서는 민·관이

함께 우리나라의 자살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자살예방에서의 민간의 역할 등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향후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는 매년 자살예방의 날(9월 10일) 즈음에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7개 부문별 실무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부문별로 참여할 수 있는 자살예방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모니터링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번 발족식을 시작으로 참여 기관들 뿐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따뜻한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동참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 지역사회봉사단이란?**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 봉사단 위촉 기준**
 - VMS 가입 5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 단체
- 봉사활동 분야**

구분	내용
기술·기능	디자인, 벽화봉사, 전기·가스점검, 집수리, 도배, 기능전수 등
상담·정보	법률 및 세무상담, 아동·청소년 등 상담(멘토링), 취업, 창업 등 각종상담 및 정보제공
운영·지원	재활도우미봉사, 재가대상·방문봉사, 행사, 프로그램보조봉사 등
문화·예술	음악, 연극, 무용진행 등 공연봉사, 지역문화축제, 지역주민 대상 행사진행 등
교육·학습	나눔·경제교육, 장애인·저소득층을 위한 수학, 영어, 국어, 한문 등 학습지도
노력·행진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노력봉사, 청소봉사, 행정 및 사무지원 등
보건·의료	무료진료, 호스피스, 간병, 위문, 운동보조, 병원업무보조 등
교통·환경	교통정리, 차량이동봉사, 지역환경 개선, 재활용 및 환경관련 캠페인 봉사 등

- 봉사단 혜택**
 - 활동재료비 일부 지원(중복지원 불가, 충북사회복지자원봉사대회 참석)
 -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
 -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VMS, 복지넷)
 - 참여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및 홍보
- 신청 및 문의**
 - 충북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부
 - 김민지 코디네이터

전화 043) 234-0840
홈페이지 www.cwin.or.kr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충북 아동돌봄서비스 업무협약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청주아동센터연합회 31개소 아동돌봄 재난복지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업무협약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센터장 이화정)는 2일 청주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한재희 회장) 소속기관 31개소와 아동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 재난복지(안전관리) 컨설팅 관련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식은 최근 각종 재난 및 화재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아동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안전관리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는

안전관리 전문가를 통해 아동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재난복지(안전관리) 컨설팅을 지원하게 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하기 쉬운 화재, 전기, 가스사고예방법, 소화기구점검방법, 화재시 피난구역 및 대피방법, 응급처치방법 등 안전 친화적 문화정착을 위해 컨설팅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화정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는 2일 청주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소속기관 31개소와 아동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재난복지(안전관리) 컨설팅 관련 협약을 체결하였다.

통해 "아동 돌봄서비스 기관의 재난복지(안전관리)에 대한 사고의 예방적 효과와 실질적으로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안전문화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기초생활수급자 자신감 찾기 교육 진행

여가문화연구소 김현기 소장 '나 자신을 사랑하자' 주제

충북청주시지역자활센터(센터장 이선재)는 04월20일(금) 청주에듀피아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주민(기초생활수급자) 65명을 대상으로 2018년 연합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여가문화연구소 김현기소장의 "나 자신을 사랑하

자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 교육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자신감을 찾고, 자활사업참여를 통해 자립의 기쁨을 마련하도록 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충북청주시지역자활센터 이선재

센터장은 "참여주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자신감을 찾고 스스로 자립의지를 확립할 수 있도록 '임파워먼트'기법에 의거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충북청주시지역자활센터는 기초생활수급권을 가지거나 차상위계층인 지역주민들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독거장애인 환경 정비, 함께 도와요"

증평군장애인복지관-두리하나봉사대 환경정비 봉사

증평군장애인복지관(관장 정찬연)은 증평군내 봉사 단체인 두리하나봉사회(회장 김태중) 함께 시각장애에 있는 독거장애인가정에 도배 및 환경정비를 실시하

였다.

정부조금 제외대상인 한모(82세,지체장애4급) 할머니는 거동이 어렵고 치매가 있어 일상생활이 어려움이 있다.

한모씨는 가족도 없이 혼자서 생활 및 관리가 어려운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약 다섯시간 걸친 도배와 환경정리를 마치고 한결 깨끗하고 밝아진 집을 보며 할머니는 행복감이 아이같은 웃음을 지으며, 감사

의인사를 표했다.

증평군장애인복지관은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향후 이러한 시각장애에 놓인 어려운 장애인분들을 발굴하여 서비스 제공 등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한편, 두리하나봉사회는 봉사의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회원들의 십시일반 회비를 모아 월 1회 정기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찾아가 직접 도배 및 환경정리를 해주고 있다.

2018년 꿈날개클럽 꿈발표회 열렸다

월드비전 용암사회복지관-제천가정개발센터 진행

월드비전 용암종합사회복지관·제천가정개발센터(관장 최성호)에서는 4월 28일 2018년 꿈날개클럽 시니어(14명) 주니어(36명) 아동 50명에게 총 78,000,000원의 꿈 장학증서 전달식과 꿈발표회를 진행했다.

이 시간을 통해 청소년들이 올해 세운 꿈에 대한 목표와 활동계획을 함께 나누고 꿈에 대해서

로 지지하며 응원하며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들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 면접을 통해 꿈날개클럽 시니어, 주니어로 각각 선발되었으며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 기간 동안 꿈을 이루기 위해 활동하게 된다.

꿈날개클럽은 다양한 꿈과 재능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자

신이 처한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지, 격려하여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기여하는 사업이다.

1년 목표를 세운 후 이를 위한 노력 정도에 따라서 연장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다.

이를 통해서 아동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을 포기하지 않고, 꿈을 이룰 수 있는 노력을 계속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꿈날개클럽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실천과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통해 자신감이 향상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참여한 이모군(고2, 18세)은 아동은 "국가대표 축구선수의 꿈을 위해 서울 소재 중학교 축구부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고 남들이 쉬는 때 조금 더 훈련하며, 항상 응원해주는 부모님과 후원자님들을 생각하며 열심히 노력해서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되겠다"고 했다.

"깨끗한 울랑천, 함께 만들어가요"

청주내덕노인복지관(관장 이창열)은 18일, 청주시 울랑천변 울랑1교에서 노인일자사업 하천지킴이 어르신 40여명과 함께 계절라 가드닝 원예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활동은 청주시 청원구를 관통하는 울랑천 일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하천지킴이사업단의 연중 테마활동으로 기획되었다.

이 날 가드닝 전문가로 유명한 정원문화연구소 김정하 소장

참여해 자투리화분을 만들어 철재 교각으로 단조롭게 이루어진 울랑1교를 화사한 분위기로 장식했다.

청주내덕노인복지관 이창열 관장은 "울랑천 일대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고 거주민들이 늘어나면서, 하천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도 증가하고 있다. 모두가 즐겨 찾는 아름다운 하천으로 만드는데 하천지킴이 어르신과 시민들이 함께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북사회복지센터 인권 교육 실시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센터장 이화정)는 11일 충북사회복지센터 2층 교육실에서 2018년 인권전문강사 보수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의 이해와 시선'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인권전문강사로 위촉된 강사들의 전문성 유지 및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실제 현장에서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

해보고, 충북도내의 장애인관련 시설에서도 함께 참여하여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이화정 센터장은 "인권전문강사 보수교육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의 사례를 가지고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 고민하며 함께 풀어가야 하는 시간이 되고, 필요한 기법을 알려주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충북의 인권을 위해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와 함께 인권전문강사로 활동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흥덕시니어클럽 '도란도란 이야기 사업단'

2018 신규 노인일자사업... 동화구연 강사 파견

청주흥덕시니어클럽(박현주 관장)에서는 2018년 신규 노인일자사업으로 '도란도란이야기 사업단'을 시작하였다.

도란도란이야기 사업단은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노인복지시설에 계

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동화구연 강사를 파견한다.

현재 10명의 어르신들이 동화구연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동화구연지도자 기본과정을 이수하고 순유회, 순재조 등의 치매예방 활동도 같이 하여 거

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께 웃음과 행복을 주고 있다.

청주흥덕시니어클럽 박현주 관장은 "앞으로 도란도란이야기 사업단은 취약 계층 어르신들의 정서함양과 옛 추억을 향유할 수 있는 귀중한 컨텐츠를 담아낼 수 있도록 발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o And Go, Dream 제천 유소년 야구단 제천 신백이동복지관의 저소득 및 소외계층, 일반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 'Go And Go, Dream 제천 유소년 야구단'은 지난 2018년 1월 1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부사업으로 선정되어 아동·청소년들의 신체발달 및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 창단되었다. 유소년 야구단은 지난 3월부터 정기훈련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12월 새로운 출발을 도모하는 창단식을 가졌다.

음성지역자활센터-극동대 산학 협력 협약식

우수인력 개발·산학간 공동 발전 도모

충북음성지역자활센터(센터장 박용훈)는 9일 극동대학교(총장 한상호)사회복지학과와 산학협력을 통하여 산학기술과 우수인력 개발 및 산학간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각각의 기

관은 사회복지학 관련 현장학습 및 실습등을 지원하고 자활근로 참여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학습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공동으로 추진하고 교류하기로 하였다.

박용훈 충북음성지역자활센터 센터장은 "산학 협력을 기반으로 자활근로 참여주민들의 인적자

원 향상을 위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북음성지역자활센터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자활능력을 길러주고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마이커피 카페 사업단을 비롯하여 총 9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47명의 자활근로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제 봉사도 저축하시고

이자로 돌봄 받으세요!

※봉사분야: 어르신 말벗, 상담, 가사지원, 주거환경개선



제천

사단법인
충북지역복지개발회 653-5025



청주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265-5305



'출생부터 노후까지' 내 삶에 필요한 복지, 한권에 담았다!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희망사다리 2018 -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발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복지서비스를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하는 '희망사다리 2018 -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공동으로 발간하였다.

23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400여개 복지서비스가 총망라된 이 책에는 국민이 스스로가 처한 상황에 따라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위험별·대상별·상황별 복지 서비스와 유용한 생활 정보가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올해는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각각 발간했던 복지안내서 2종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통합하여 한권으로 발간하면서 정보량을 확대하고 발행 부수를 늘려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이용 편의를 위해 '지원절차 및 가나다순 색인'도 수록하였으며, 본 책 외에 휴대가 간편한 '주요사업50 소책자', 큰 글자로 인쇄된 '노령층 맞춤형 가이드북', 대상별(아동·여성, 청년, 노령층, 장애인) 전자책(e-book) 및 QR코드(시각장애인용 음성지원 포함)* 등이 별도로 제작된다.

* 보조공학기를 이용 시각장애인에게 읽어주는 전자책 형태의 자료(텍스트메이저) 지원 예정

'2018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는 국민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민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고용센터,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1만 4000여 곳에 배포된다.

내게 맞는 복지서비스 찾기(예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요?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18p), 긴급복지 지원제도(22p), 저소득·서민을 위한 주택임대 사업(25~38p) 등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형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도(계부도 포함), 지내(시위, 어드미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가족관계(한계이혼, 국외,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고도소 수감, 해외유학, 행정명령 등인 경우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생계급여

가구원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월액으로 지급

지역예시 소득인정액이 0원인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82만 5700원에서 60만 원을 뺀 126만 9700원 지급(월 단위 월액)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분	1차(아동)	2차(청년)	3차(장년/노년)	약국	
1종*	입원	입원	입원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종: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 중증질환 등 복지(사별수급) **2종: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중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일자리를 찾고 계신가요?

생계비를 지원하며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드립니다. 실업급여 제도(60p), 취업성공패키지(61p), 내일배움카드제(62p), 근로장려금(68p) 등

아이를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 걱정이시죠?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드립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88p), 보육 지원(98~102p), 방과후 돌봄(113~114p) 등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직장을 잃은 후 다시 직장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실업급여

- 대상 해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금을 지급받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경정한 아직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근무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내용 아직 단상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아직 전 평균임금의 50% 지급
 - ※2018년 1월 이후 이직자의 경우 월 실업급여 상한액을 2만 원으로 인상
- 방법 퇴직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직자) ⇒ 수급자격 처리 및 실업인정일 지정(고용센터) ⇒ 재취업활동(수급자) ⇒ 실업일 및 구직급여 지급(고용센터)
- 문의 고용노동부 고직상담센터(☎1350)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신고(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를 해야 합니다. 부정한 실업급여 수급은 반드시 신고해주세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 도는데 하루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려고 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이를 신고하면 최고 500만 원(부정수급액의 20%)의 포상금이 주어지고,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3,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재보지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어 도움이 필요한가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건강보험 차상위(152p),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168p) 등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병·의원 이용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와 약제비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건강보험 차상위

- 대상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기준 220만 9600원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내용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	지급내용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외래) 전체 최대의 20%만 부담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입원비용의 10%, 4차의 20%, 외래비용의 10%(총액 1000원, 1500원만 부담)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지급
-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어르신들, 생활이며 건강이며 걱정이 많으시죠?

재정적인 도움을 비롯해 의료, 일자리 등 다양한 지원을 해드립니다. 기초연금제도(172p),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176p), 노인 틀니 지원(183p) 등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이 필요할 때 노후를 미리 준비하지 못했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일정한 연금을 지원해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습니다.

기초연금제도

- 대상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2018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3만 원, 부부가구 209만 6000원
- 내용 매월 최대 20만 9960원까지 지원(2018년 4월 기준금액)
 - 단독가구: 월 최대 20만 9960원
 - 부부가구: 월 최대 33만 5920원
 -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어르신들에게는 최소 2만 원까지 차등 지급
-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만 65세 미만인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 대상이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별도 공지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기초연금(basicpension.moh.go.kr)

알려드립니다

기초연금은 매달 월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도 올라갑니다. 2018년 9월부터 최대 25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되는 재산과 소득은 어르신 단독, 부부의 것만 반영됩니다(자녀의 재산과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과하게 금액이 되었어도 소득, 재산 등에 변동이 있으면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정기적인 이력관리를 통해 수급자 가능 여부를 예측해 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회활동 참여와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힘이 되어 드립니다. 장애인연금(194p),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210p), 장애인활동 지원(231p) 등

장애인연금

- 대상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1급, 2급, 3급 중)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독거가구 12만 원, 부부가구 193만 6000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내용 근로 능력 감소로 소득이 미미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 지원 (2018년 4월 기준 월지급액)

구분	만 18~64세	만 65세 이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28만 9960원 ·기초급여 20만 9960원 ·부가급여 8만 원	28만 9960원 ·부가급여 28만 9960원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27만 9960원 ·기초급여 20만 9960원 ·부가급여 7만 원	7만 원 ·부가급여 7만 원
차상위 초과	22만 9960원 ·기초급여 20만 9960원 ·부가급여 2만 원	4만 원 ·부가급여 4만 원

*차상위계층: 2018년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기준 225만 9600원 이하
**만 65세 이상 시에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별도신청 필요)
-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정결정 후 급여지급(매월)
-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복지로-장애인연금(www.bokjira.go.kr/pension)

출처: 보건복지부

총복

내게 꼭 맞는 사회복지정보를 한눈에!



칼럼 Column

작은 결단과 행동이 희망이 됩니다



김완호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팀장

지 않은 감정에 빈번히 노출되며 정신 없이 바쁘게 사는 일상생활 속에 가족, 친구, 동료들의 관심과 정서적 지원은 시간이 지나며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에게 정신건강 문제는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정신건강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마음이 건강해야 우리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건강이 중요한 것만큼 정신건강 또한 개인의 삶의 질을 좌우하게 되는 최우선에 가치입니다.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정신건강에 대해 오해를 하거나, 사회적 시선이 두려워 관리에 소홀하지 않는지 생각해 보고 새로운 인식변화와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역사회에는 보건복지부와 광역단체, 시·군이 지원하여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주민들의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 정신건강복지 전문기관으로 광역형과 기초형으로 나뉘며 충북도내에는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1개소), 시·군·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1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인식개선, 근거기반 사업수행을 위한 연구조사, 프로그램 개발, 위기관리 네트워크구축, 24시간 365일 '1577-0199'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는 중증정신질환자 및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사례관리,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교육, 정신재활 프로그램운영, 치료연계 및 진료(검사 및 치료)비 지원 등 지역주민들의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위한 공공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신건강 및 자살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충북도민이라면 누구나 해당 지역센터에 상담 예약 후 상담 및 평가를 통해 내담자 욕구를 반영한 개별화된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전국 어디에서나 24시간 365일 대표전화(1577-0199)로 전화를 걸면, 정신건강 전문상담사가 수신하여 정신건강 및 자살위기상담과 정보제공,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질 높은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에 대한 의사결정과 새롭게 필요한 것을 받아들이는 데 항상 이 문구를 생각합니다. '생각만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늘 아쉬움.'

정신건강 및 자살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을 두드리세요. 작은 결단과 행동이 새롭게 만나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희망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급 변화하는 사회에서 적응해 나가기란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주변 환경으로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성은 떨어지고 과도한 스트레스로 우울감, 불안감 등 달갑

칼럼 Column

아동 주거복지 지원의 중요성



김영선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에 따르면 아동이 있는 608만 가구 중 9.4%에 해당하는 57만 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살고 있으며, 한부모가정의 23.1%, 소년소녀가정의 37.0%가 주거 빈곤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많은 아동이 좋지 않은 주거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적절하지 못한 주거환경은 사람의 건강과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특히 성장단계에 있는 아동에게는 더 큰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주거환경은 아동의 심리적 안정까지 위협할 수 있는데 또래집단의 비행, 사회적 배제와 낙인 등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이다. 아동에게 적절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다.

아동의 주거현실을 고려할 때, 주거복지 정책의 주요 의제로 아동 주거문제를 본격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매우 의미가 크다.

우리나라 주거정책은 2015년 주거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과거 주택공급 확대에 치중하던 정책방향이 주거복지 향상으로 전환돼, 생애주기를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주거사다리 구축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생애주기를 고려한 주거수요에 기반해 청년·신혼·고령가구와 더불어 주거 취약계층인 아동의 주거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게 됐다.

소년소녀가정은 우리에게 소년소녀가장이라는 단어로 익숙하다.

소년소녀가장이라는 용어 자체가 아동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는 UN 아동권리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00년에 소

년소녀가정으로 명칭을 바꾸고, 지원정책을 가정위탁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소년소녀가정의 아동은 조부모나 친인척 또는 일반가정에 위탁연계해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2016년 현재 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은 1만 2896명이다.

보호대상 아동이 학업 등의 이유로 보호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무상지원하고 보호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주거비 부담을 완화임대료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는 보호자 없이 남겨진 소년소녀가정의 주거안정성을 향상시켜주고 위탁 및 후원가정의 연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아동보호시설인 '그룹홈'에 대한 지원은 과거 법인으로 한정했지만, 이번 정책으로 개인시설까지 확대했다. 전체 아동 '그룹홈' 중에서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그룹홈'이 약 6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시설환경 개선과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주거지원 정책이 보다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 되려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물리적인 주거안정 보장과 더불어 아동들의 사회·문화·심리적 안정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아동들이 위탁가정이나 '그룹홈'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하고, 아동들에게 충분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해 아동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세심한 배려가 전제된 주거지원 기반이 구축되어만, 보호대상 및 저소득 아동들이 일반가정의 아동들과 다르지 않은 주거환경으로 진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거사다리가 되어줄 것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 아동에게 필요한 주거지원을 위해서는 면밀한 아동 주거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아동 관련 통계는 보육상태와 가구구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아동의 주거실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실시하고 있는 일반가구, 신혼부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 조사와 연계해 아동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면, 아동주거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일 수밖에 없었던 아동 주거복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아동 주거지원 정책을 시작한 만큼, 정부의 이번 후속조치가 아동 주거권에 대한 정책적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최근 정부는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아동 주거복지에 대한 정책을 제시했다.

신혼부부와 청년가구에 집중돼 있던 주거복지를 아동까지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은 만 18세 미만으로 정의하며, 정부가 지원할 정책대상은 보호아동과 저소득가구 아동이다.

보호아동은 소년소녀가정과 위탁아동,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을 말한다.

저소득가구 아동은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1억 6700만 원 이하인 가구에 소속된 아동이다.

정책의 주요내용은 보호대상 아동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주고 아동보호시설(아동 그룹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한국도시연구소(2017)의 연구결과

칼럼 Column

아이들에게 따뜻한 가족이 돼주세요



김영일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장

“아이는 조그만 꼬마리 두 개를 옆에 놓고 그 누군가를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부부가 아이 걸음로 다가가지 아이가 물었다. “내 엄마, 아빠예요?”

낯선 부부를 내 엄마 아빠냐고 물어보는 입김 살짝 서늘이. 어떤 사연일까요? 이 이야기는 서영이가 처음 위탁부모님을 만난 날의 이야기입니다.

서영이는 친부모와 사별하고 90세 조모와 홀로 남겨졌습니다. 연로한 조모는 서영이를 돌봐줄 힘이 없습니다. 서영이는 가정위탁제도를 통해 엄마, 아빠를 대신해줄 위탁가정을 만났고 지금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예원이 엄마는 미혼모로 예원이를 출산했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고 도와줄 친인척도 없었습니다. 예원이 엄마 앞에는 버거운 현실만이 높디란 장벽이 되어 버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누군가 조금만, 조금만 도와준다면,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을 방법이 있다면…….”

예원이 엄마의 간절함이 가정위탁제도로 닿았습니다. 지금 예원이 양육경험이 풍부한 위탁부모 가정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위탁부모님과 가정위탁센터는 예원이 엄마와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며 동반자와 멘토가 되어줍니다. 이제 내년이면 예원은 친엄마에게 돌아갈 예정입니다.

준혁이 위탁부모님은 벌써 세 명째 위탁아동을 키우고 있습니다. 앞서 길렀던 두 명의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 친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변에서는 입양과 뭐가 다르냐고 묻습니다. 또 남의 아이 키우는 것이 힘들지 않냐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준혁이 위탁부모님은 가정위탁은 입양과는 다른 제도이며 일정기간 아이들에게

따뜻한 가정이 되어주는 제도라고 친절히 설명해 줍니다.

준혁이 위탁부모님은 경험을 통해 위탁가정이 충분한 사랑을 제공하면 어떤 아이라도 웃음을 되찾고 건강하게 자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힘들지라도, 오늘도 위탁부모로 분주한 하루를 보냅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얻는 기쁨은 무엇보다도 비꿀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시카고대학 Courtney 교수는 연구를 통해 친부모와 분리되어 양육된 아이들은 타인과의 애착형성 및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느끼며 일반아동에 비해 불안이 높고 주의집중력과 학업능력 저하가 나타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학자들도 이런 아이들의 신체적 질병 유병률도 2~4배 높을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잘 돌볼 방법은 없는 걸까요?

우리는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그리고 실제 위탁부모의 경험을 통해서 방법이 있음을 압니다.

비록 친부모와 분리되었을지라도 가정과 같이 안정적이고 일관된 양육환경에서 사랑으로 돌봐줄 때, 아이들은 환경적 저해요소를 극복하고 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친가정과 분리되는 아이들의 불안을 감소하고 안정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선 가정보호, 후 시설보호'의 정책기조에 가정위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정위탁센터는 전국 광역시와 도 단위에 총 1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도 500명의 아이들이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위탁가정과 연결되어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느 아이들이라도 따뜻한 가정에서 안정하게 보호받고 사랑받고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아이들의 이 기본권을 지켜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친부모와 분리되었다고, 이 세상에 홀로 남았다고 해서 그 아이의 보호받을 권리가 박탈당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대안과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이들의 사연에 안타까워하기보다는 행동하고 참여할 때가 아닐런지요.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따뜻한 가족이 되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칼럼니스트를 모집합니다.

- 사회복지 이슈에 관심있는 분이려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칼럼니스트로 활동하실 원하시는 분은 전화(☎043-234-0840~2) 또는 이메일(cpcsw@chol.com)로 문의 바랍니다.

법률복지의 새 장을 여는

무로 법률홍담닥터 사업 안내

법률홍담닥터제도는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변호인이 충북사회복지협의회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입니다.

<p>지원내용</p> <p>법률상담 및 정보제공과 법교육, 구조안선과 법률문서작성 등 소송 수입 없이 가능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p>	<p>서비스 제공대상</p> <p>기초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지역주민,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p>	<p>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p> <p>근로관계 및 임금, 채권 및 채무, 상속 및 유언,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입니다.</p>	<p>법률서비스 제공</p> <p>원만한 변호사 (법무부 인권구조과)가 담당합니다.</p>
---	---	--	---

서비스 신청은

시 간: 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공휴일 제외)
 전 화: 043)238-0843 / 이메일: wma7259@naver.com
 사무실: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청종합사회복지센터 300호 법률홍담닥터

이 달의 법률상식



원명안 변호사

Q. 저는 평소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는데, 얼마 전 출근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병원치료를 받았습니...

A. 산업재해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

출퇴근 교통사고 산업재해 인정여부

를 당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산업재해보상 기준이 되는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인정되는 것으로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2017년까지는 근로자의 출퇴근 관련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에만 산재로 인정해왔습니다. 그러나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2018년부터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즉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또는 도보로 출퇴근을 하다가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하였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고, 산재로 처리하면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다시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 인권구조과>

복지정보 제공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좋은돌봄 bk & bk' 콘서트 개최 안내 및 참석 요청

- 일시: 2018. 6. 7(목) 14:00~16:00
■ 장소: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대회의실(207호)
■ 주요내용: 좋은돌봄을 위한 토크 콘서트
■ 신청방법: 붙임 2) 참가신청서 작성 후 5. 31(목) 18:00까지 이메일(cpcsw@chol.com) 또는 팩스(043-234-0849) 전송 (붙임자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문의: 복지사업부 한아름(043-234-0840~2)

[건강가정지원센터] 2018년 행복가족상담서비스

- 기간: 2018년 2월 ~ 10월 (9개월)
■ 장소: 청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실
■ 대상: 청주시 거주하는 모든 유형(다문화 및 비다문화)의 위기가족
■ 내용: 가정폭력, 이혼, 자살, 사망, 사고, 경제적 및 사회적 위기 사건을 직면한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상담 운영
■ 방법: 위기가족 25가구 선정 / 가구당 16회기 상담 진행
■ 신청: 전화접수 043)263-1817~8 (행복가족 상담서비스 사업은 국가지원 사업으로 무료)
■ 참고: http://www.familynet.or.kr

[대한적십자사]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 홍보

- 사업명: 혼자자 아니야, 언니의 선물 (위생용품 지원사업)
■ 지원대상: 여성청소년
가.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가출여성 청소년 우선지원
나. 2000년 1월 ~ 2009년 12월 생가지 신청가능
■ 참여방법: 적십자 나눔 플랫폼
* http://www.redcross.or.kr
■ 운영일정
가. 선물하기 (국민·기부자): 연중운영
1) 적십자 나눔 플랫폼을 통한 기부 참여
2) 수혜자 사연등을 활용하여 모금 참여 강화
나. 선물받기 (소녀·수혜자)
1) 신청기간: 매월 1일 ~ 20일
2) 심의기간: 매월 21일 ~ 30일
3) 선정 발표: 익월 5일까지 문자메세지 발표

4) 물품발송: 선정자 가정에 택배발송

- 지원품목: 생리대 3개월분 및 안내책자
■ 기타사항
가. 지원용 생리대는 희망품차 나눔마켓 위생용품 1호와 동일종류로 지원함 (소형, 중형, 대형, 오버나이트 각1개)
나. 향후 생리대 기부처 발굴하여 기부물품으로 대체 예정

[대한보림협회] 2018 행복나눔 생활체육 볼링교실 모집 공고

- 기간: 2018.6~11월
■ 모집규모: 전국 18개소/개소당 20명
■ 대상: 사회 소외계층 청소년(관련시설 소속,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 참가연령: 초등학교 4학년 이상 ~ 고등학생
■ 참가신청: 2018.5.18(금)~6.5(화)
■ 지원사항
1. 무료 볼링 강습 15회, 유명선수와 함께 하는 볼링대회 1회
2. 볼링 유니폼 상의 1벌, 주춧차배상책 임보현 가입(교육기간 내)
3. 참가자 식사, 간식제공(각1회)
4. 수료증 또는 수료메달
■ 참고: http://www.bowling.or.kr

[한국나눔재단] 2018년 7월 틈음버스(일반지원) 공고

- 접수기간: 2018. 5. 14(월)~6. 1(금) 18:00
■ 지원대상
버스를 활용하여 문화, 역사, 전통, 생태, 교육 등의 체험을 계획하는 사회복지기관
■ 지원내용
1. 45인승 버스 1대(기사포함): 1일 또는 1박 2일 (전국사업)
2. 버스 운행비: 볼케이티브, 주차료, 유류비, 기사님 숙식비 (단, 프로그램공연, 여행, 탐방 등)비용 및 보험비용은 기관 자부담
■ 지원 제외대상
1. 법령상 금지된 행위에 사용되는 경우
2. 정치·종교적 목적으로 하는 사업
3.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4.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업
5. 버스 2대 이상 요청하는 경우
■ 접수방법
온라인접수: 한국타이어나눔재단 > 신청하기 > 진행사업 > 틈음버스
참고: hankooktirefoundation.or.kr

[보건복지부] 출생부터 노후까지 내 삶에 필요한 복지, 한눈에 담았다!

-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복지서비스를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하는 '희망사다리 2018 -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공동으로 발간
- 23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400여개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위험별·대상별·상황별 복지서비스와 유용한 생활 정보가 상세히 수록됨
■ 참고: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4923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 정비
■ 참고: http://www.mohw.go.kr

[충북도청차지연수원] 도민교육과정(6월)

- 주요내용
- 제1기 자원봉사능력개발(중부권): 6.19(화)
- 제1기 실버문화과정(보은군): 6.19(화)
- 제2기 자원봉사능력개발(북부권): 6.21(목)
- 제2기 실버문화과정 (충주시): 6.22(금)
- 제3기 실버문화과정 (괴산군): 6.26(화)
- 제3기 자원봉사능력개발(남부권): 6.27(수)
- 제4기 실버문화과정 (음성군): 6.28(목)
■ 참고: http://www.cb21.net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복지관 노후차량기능보강지원사업 'K-Mobility Care'

- 사업명: 사회복지관 노후차량기능보강지원사업 'K-Mobility Care'
■ 사업대상: 전국 사회복지관 등록 차량 (법인등록 차량 가능)
■ 지원내용: 차량수리비 최대 150만원
■ 신청마감: 2018. 5. 31(목) 18:00까지
■ 문의: 황지혜 대리(직통: 02-2088-7123)

자원 봉사자 모집

▶ 민요봉사
관리센터: 중앙행복요양원
활동기간: 5.1 ~ 12.31
전화번호: 043-263-8463

▶ 어르신 한글교실
관리센터: 청주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5.1 ~ 12.31
전화번호: 043-266-4761

▶ 어르신 이미용 봉사
관리센터: 대신노인요양원
활동기간: 5.1 ~ 12.31
전화번호: 043-266-0825

▶ 병원내 편의정서청결
관리센터: 청주시립요양병원
활동기간: 5.1 ~ 12.31
전화번호: 043-220-8000

▶ 학습지원
관리센터: 충북다문화가정지원센터
활동기간: 5.1 ~ 8.30
전화번호: 043-263-0041

▶ 환경정리
관리센터: 평화지역아동센터
활동기간: 5.1 ~ 6.30
전화번호: 070-4414-7004

▶ 공연봉사
관리센터: 수정노인의집
활동기간: 5.1 ~ 12.31
전화번호: 043-218-3436

▶ 유아엔터테인먼트 자원봉사자 모집
관리센터: 시소와그네영유아통합지원청 주시센터
활동기간: 5.1 ~ 6.30
전화번호: 043-232-0890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요청인원: 0명
활동기간: 연중
전화번호: 043-234-0840~2

지역사회봉사단

"글 몰라 서러울 일 없는 세상 만들어요"

2018년 4월 24일 다사랑 봉사단이 청주시 우암동 평화화가 새로운교회 도서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글과 한자 교육을 하였다.
다사랑 봉사단은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소속 봉사단으로, 2013년부터 지역사회봉사단으로 활동해왔다. 매주 2회 약 10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글과 한자 교육을 한다.
다사랑 봉사단 김경숙 회장은 교육을 받으신 어르신중 한 분이 "깜깜한 터널에서 빠져나온 기분"이라며 고마움을 전했을 때 가슴이 뭉클해졌다고 하였다.



앞으로도 다사랑 봉사단의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기대하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는 전문봉사단(지역사회봉사단)의 활동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한다.

전자상거래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생모집
전자상거래 관련 소평몰 운영 및 관리부문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된 단기기술, 실무교육을 통하여 취업과 연결할 수 있는 미래 지역, 산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대상: 만 18세~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기간: 2018. 7월 ~ 8월 (2개월)
인원: 30명
교육과정: 1)서유전형: 1차(마감5월), 2차(마감6월), 2)면접전형(6월)
수료료: 10만원 / 교육 수료 시 100%한급(합격률 85% 이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34 세종테크노밸리 206호 제1강의실
(사)퍼스트경영기술연구원, (주)제이비컴 교육훈련사업부
Tel. 043-715-6759, 043-715-8114 Fax. 043-715-8118
E-mail: whittool@naver.com, 11960@hanmail.net
교육특전: 교육비(수업료, 실습비, 교재비 등) 지원, 7개 협력업체에 12명 채용연계 예정 (실적우수자)
단계별 교육훈련 실시과정: 서류접수(4~6월), 인형선발(6월), 교육훈련(7~8월), 취업지원(9~12월)

복지만/평
물렁뼈
사람이 그렇게 물렁해서 어디다 쓰나...
물렁뼈(연골)는 완충작용을 하며 마찰을 줄여줍니다. 물렁뼈가 없다면 걸을 수 없습니다. 강하게 있다면 부드러운 것도 있는게 세상 이치입니다.
복지도 따지고보면 물렁뼈의 역할을 하고있습니다.